

【연구논문】

포우 단편 소설에 나타난 동물 자력론*

신혜원

(고려대학교)

1. 서론

에드가 앨런 포우가 살던 19세기 서양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근대 과학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시기였다. 17세기 요하네스 케플러와 아이작 뉴턴으로부터 시작된 자연 철학과 수학의 근대 혁명은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물리학, 화학, 천체과학, 생물학, 의학 등으로 세분화되어 발전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전기(electricity)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는데 1760년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피뢰침을 발명했고, 1800년 알레산드로 볼타는 최초의 전지에 해당하는 “볼타의 파일”(the Voltaic Pile)을 세상에 소개하였다. 1831년 마이클 패러데이는 전기가자기장 회전 법칙을 발표하였으며, 1837년 위트스톤과 쿡의 무선 전신 발명에 이어 새뮤얼 모르스는 184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워싱턴과 볼티모어 사이 무선 전신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에 성공한다.¹⁾ 물리학과 화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혁명적 과학 이론이 쏟아져 나오던 19세기 전반은 포우가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8018857).

1) 자세한 근대 과학사 연대기는 해롤드 비버가 편집한 『에드가 앨런 포우의 공상과학 소설』(*The Science Fiction of Edgar Allan Poe*) 내 부록 참조(pp. 427-29).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 역시 당대 일반 대중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과학 이론에 매혹되었으며 과학 이론은 그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동물 자력론(animal magnetism)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이어져오던 동물 정신(animal spirits)에 관한 이론이 18세기 루이지 갈바니와 볼타의 동물 전기(animal electricity) 이론으로 계승되던 시기에 파생한 일종의 유사과학(pseudoscience)에 가깝다. 그러나 동물 자력론과 위에서 언급한 이론들과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동물 자력론이 이후 초기 심리학 발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사의 일부로 다루는 학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동물 자력론 뿐 아니라 19세기 서양 사회에서 유행한 인상학(physiognomy), 골상학(phrenology)의 예에서도 보듯 과학과 유사과학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런 불분명한 경계는 우리로 하여금 ‘과학’과 ‘사실’이라는 개념 정의를 재고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들어 문학 뿐 아니라 의학, 역사학, 경제학 등에서 연구되고 있는 동물 정신론과 동물 자력론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이론이 19세기 서양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전파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특히 공상과학소설 장르의 개척자로 간주되는 포우의 두 단편 소설 「래기드 마운틴 이야기」(“A Tale of the Ragged Mountains,” 1850)와 「발드머 케이스에 관한 사실」(“The Facts in the Case of M. Valdemar,” 1845)에 동물 자력론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핌으로써 과학 현상이 문학 작품에 끼친 영향과 문학과 과학의 상호 연계성을 탐색할 것이다.

시드니 린드와 도로시 포크와 같은 평론가들에 의하면 포우는 의학 저널 『란셋』과 기타 과학 저서들을 통해 동물 자력론에 심취했으며 자신의 몇몇 단편들에서 이를 모티브로 삼아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동물 자력론은 독일인 의사 프란츠 안톤 메스머에 의하며 주창되었으며 19세기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동물 정신이나 갈바니 전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통용되었다. 메스머의 이론은 의사가 환자의 의식과 신체를 연결, 통합하는

자력 물질을 조절함으로써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포우의 단편 소설 속에서 이 물질은 인간의 영혼을 고양하는 시적 상상력에 비유된다. 그에게 있어 동물 자력이란 결국 시적 상상력의 과학적 표현이며, 이러한 힘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인 전자자기장(electromagnetic field)은 저자와 독자가 만나 교감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물 자력론은 문학 작품을 통해 저자와 독자 사이에 형성되는 자력 관계에 관한 포우의 환상 혹은 불안감을 반영한다. 전자자기장 내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 흐르는 “보편적인 유동체”(universal fluid)에 의해 병의 치유가 이루어진다면, 전기자기장에 비유되는 문학 작품이라는 공간 안을 흐르는 유동체는 곧 시적 상상력이며 상상력이 힘을 발휘하는 공간 안에 작가와 독자 사이 경계는 허물어지고 그들은 일시적으로 합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포우의 동물 자력론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메스머의 자석을 이용한 환자 통제와 달리 펜으로 독자를 움직이는 언어적 최면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포우는 기존의 과학 혹은 유사과학 이론을 문학에 접목시킴으로써 과학과 문학의 공통분모를 독자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것은 언뜻 상이해 보이는 두 학문 체계 안에서 과학자와 작가는 모두 기호, 숫자, 언어 상징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경이로운 진실을 가깝고 낮익은 것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유사과학과 문학의 상관성을 살피는 시도를 통해 포우의 작품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동물 자력론을 다룬 두 단편 소설 「래기드 마운틴 이야기」와 「발드머 케이스에 관한 사실」이 기존에 널리 알려진 「작문의 철학」(“The Philosophy of Composition,” 1846)에 나타난 포우의 문학 이론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밝힘으로써 포우 연구 전반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문학과 사회학, 역사학, 자연 과학과의 협업을 통해 인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최근 연구 조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 동물 정신론과 동물 자력론

19세기에 등장하여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은 메스머의 동물 자력론의 사상적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등장한 동물 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어로 “사이키콘”(psychikon), 라틴어로 “스피리투스 아니말리스”(spiritus animalis)로 표기되는 “동물 정신”의 역사적 유래는 기원 전 3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언 글린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알렉산드리아의 의사들은 “무게가 없고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 어떤 물질이 신체 내 운동 신경과 감각 신경을 따라 흐름으로써 움직임과 감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다(Glynn 353). 고전적 동물 정신론을 계승한 2세기에 갈레노스에 이르면 동물 정신은 “유일무이한 전지하고 정의로운 신 혹은 창조주”라고 정의되었다. 고전적 동물 정신론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간에서 생성되는 “자연 정신”(the natural spirit), 심장에서 생성되는 “활력의 정신”(the vital spirit), 그리고 두뇌에서 생겨나는 동물 정신으로 나뉘는데 이중 동물 정신은 감각 기관의 감지 활동과 두뇌에 자리한 이성의 최상위를 관장한다고 여겨졌다(Ochs 24). 동물 정신 가설은 대체적으로 17세기까지 계승되어 데카르트에 이르게 되는데, 그는 동물 정신을 파이프를 따라 흐르는 유동체로 보고 방광에 공기가 차듯 동물 정신은 근육을 채워 부풀게 한 후 이러한 압력의 결과로 사지(limbs)의 말단이 잡아당겨지며 움직인다고 설명했다(Clower 204).

하지만 동물 정신이 어디에서 생성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일으키는지 설명할 수 없었던 과학자들은 17세기 이래 근육의 움직임을 설명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두뇌로부터 생성되는 물질 대신 신체 내부의 화학 반응이나 공기, 빛, 전기 등의 외부 자극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특히 해부학자였던 갈바니는 1786년 해부한 개구리의 뒷다리에 해부도가 닿자 경련이 일어남을 관찰하고 이를 생체 내 전기 현상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하지만 갈바니 역시 그가 발견한 동물 전기의

근원은 생리학자들이 동물 정신이라고 주장하는 “대뇌”(the cerebrum)라고 말했다(Ochs 120). 한편 볼타는 갈바니의 이론에 반대하여 동물 전기를 금속 내 전류 현상으로 보고 실험을 거듭하였고 궁극적으로 생물체 내부에 전기 활동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생물체는 인공적으로 발생한 전기를 위한 수동적 전도체에 불과하다고 간주했다. 결국 볼타의 설이 더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위와 같은 갈바니-볼타 논쟁은 동물 정신 가설에서 동물 전기 가설로 옮겨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갈바니의 동물 생체 실험은 과학자는 물론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많은 유사 실험과 유사과학 이론의 유행을 불러왔다. 잘 알려진 예로 갈바니의 조카인 지오바니 알디니는 갈바니의 동물 실험에서 한층 더 나아가 1803년 런던에서 처형된 범죄자 조지 포스터의 사체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공개 실험을 통해 대중으로 하여금 과학의 매혹과 공포를 동시에 체험하게 하였다. 갈바니와 알디니의 실험에서 보듯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과학의 이면에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검증되지 않은 무성한 유사과학 또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새로운 이론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대중은 물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과학과 유사과학의 구분은 쉽지 않았으며 어제 과학적인 업적으로 인정받았던 것이 새로운 가설과 실험 결과로 인해 비과학으로 치부되는 일도 일어났다.

이와 같이 전기와 자기장 이론을 비롯한 과학 이론에 노출되어 있던 1840년대 대중의 생각 속에 갈바니 전기 혹은 동물 전기는 생물체를 통합하는 전기자력의 일종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동물 자력과 혼동되어 존재했다. 당시 대중들은 동물 사체는 물론 사람의 시체 일부분을 되살리는 실험에 매료되곤 했다(Faivre 27). 동물 자력론은 메스머리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독일 출신 의사로 파리에서 활동한 프란츠 안톤 메스머의 이름에서 기원했기 때문이다. 메스머는 인체 안에 보이지 않는 유동체(fluid)가 흐르고 있고 이는 자력의 영향을 받으며, 의사는 환자의 유체의 흐름에 생긴 이상 증상을 치료함으로써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 메스머에 따르면 이 보이지 않는 “유동체는 한 치의 빈 공간 없이 우주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 모든 움직임에서 오는 인상을 받아들이고 전파하며 소통하기 쉽도록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fluid which is universally widespread and pervasive in a manner which allows for no void [...] and is of a nature which is susceptible to receive, propagate, and communicate all impressions of movement, Mesmer qtd. in Chu 6). 의사는 환자의 머리 위로 자석을 통과시켜 환자의 신경계를 자력 혹은 전기로 충전시킴으로써 환자와 의사 모두 전도체가 되어 “서로 연결된다는”(en rapport) 주장이다. 메스머의 이론은 파리 의학계에서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학자들의 공분을 샀지만 한편으로 다수의 추종자와 그의 기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생겨났고, 결국 프랭클린이 주도한 1784년 프랑스 왕실 조사단의 조사 끝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 졌다. 하지만 이후 메스머의 추종자인 뷔세구르 백작은 그의 기술을 발전시켜 비언어적 수단으로 환자에게 최면을 걸어서 자력을 흐르게 한 후 몽유 상태에서 환자를 치료했다. 이 몽유 치료는 메스머리즘의 필수 요건이 되었으며 이에 외과 의사 제임스 브레이드는 1843년 “최면”(hypnosis)이라는 단어를 고안해냈다. 동물 자력론은 이후 장 마르틴 샤르코의 최면술을 이용한 심리 치료에 영향을 주었고 지그문트 프로이트도 초기에 이를 받아들였다가 차후 탈피하였다. 오늘날에도 메스머의 영향을 받은 최면 이론은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에서 여전히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미국 사회에서 동물 자력론은 19세기에 찰스 포이엔과 같은 유럽에서 온 방문객을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어갔다. 1837년 영어로 발간된 뷔세구르의 저서는 미국 사회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저자 불명의 『동물 자력론의 철학』(*The Philosophy of Animal Magnetism*)이 출간되었다.²⁾

2) 『동물 자력론의 철학』의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조셉 잭슨과 같은 학자는 포우가 그 저자라고 주장한다(Falk 537).

촌시 해어 타운센드의 『메스머리즘에 관한 사실』(*Facts on Mesmerism*)도 1840년에 출간되어 포우의 단편 소설 창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포우의 작품 중에 특히 「메스머적 시현」(“Mesmeric Revelation,” 1844), 「발드머 케이스에 관한 사실」, 「래기드 마운틴 이야기」, 그리고 「미이라와의 대화」(“Some Words with a Mummy,” 1850)에 동물 자력론이 중요 모티프로 등장한다.³⁾ 지금까지 남아있는 다수의 자료들이 동물 자력론에 관한 포우의 지대한 관심을 증명하는데, 특히 그가 당대 의학 저널을 탐독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면 포우는 유구한 전통의 의학 잡지 『란셋』(*The London Lancet* 혹은 *Lancet*)에 실린 「메스머리즘의 시작, 발전, 그리고 신비」(“On the Rise, Progress, and Mysteries of Mesmerism,” 1845) 라는 문헌과 『의학 저장고』(*Medical Repository*)에 실린 사형수 사체에 대한 갈바니 실험 내용을 읽고 자신의 창작에 참고했다(Falk 536, 537). 그는 또한 1844년 당시 심령술사이자 투시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던 앤드류 잭슨 데이비스의 메스머리즘과 초절주의 이론을 다룬 강연에 참석하기도 했다. 포우는 타운센드의 책을 동시대 가장 영향력 있고 깊이 있는 철학서 중 하나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⁴⁾

포우가 작품 활동을 하던 1830-40년대에 동물 자력론은 과학 이론으로서 그 위치를 많이 상실했지만 여전히 대중의 마음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포우가 메스머의 사상에 기초한 단편 소설 「발드머」를 발표하자 그 반향은 미국 내 뿐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까지 전해졌다. 일례로 로버트 콜라이어라는 보스턴의 메스머리스트는 포우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그의 작품을 찬양하며 자신도 동물 자력을 통해 환

3) 이하 「래기드 마운틴 이야기」는 「래기드 마운틴」, 「발드머 케이스에 관한 사실」은 「발드머」로 칭함.

4) 매튜 테일러는 포우의 메스머리즘을 당대 생리학자이자 해부학자인 허버트 매요의 사상과 비교하였다. 매요가 메스머리즘을 “유토피아적이고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인성 계발에 호의적인 힘으로 간주했다면, 포우는 인간이 외부 환경과 접촉할 때 개개인의 “자율성과 내면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우주적 에너지로 해석함으로써 개인의 독립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Taylor 197).

자를 죽음에서 살려낸 경험이 있었다고 적고 있다(Beaver 393). 또한 포우가 자신의 소설을 헌정했던 영국의 여류 시인 엘리자베스 배럿 브라우닝은 그에게 직접 쓴 편지를 통해 「발드머」가 유럽 사회에서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귀하의 [...] 메스머리즘에 관한 이야기(‘발드머 케이스’)는 마치 아이들이 유령 이야기에 대해 말하듯 그것이 진실일 수 있는지에 관해 우리 모두를 두려운 의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야기에 관해 확실한 것은 작가의 힘, 그리고 끔찍하면서 있을 법하지 않은 것들을 가깝고도 익숙한 것 같이 만들 수 있는 작가의 능력입니다. (Browning, Beaver 394에서 재인용).

there is a tale of yours [...] about Mesmerism (‘the Valdemar Case’), throwing us all into—dreadful doubts as to whether it can be true, as the children say of ghost stories. The certain things in the tale in question is the power of the writer, and the faculty he had of making horrible improbabilities seem near and familiar.

브라우닝의 편지에 적힌 「발드머」에 대한 감상에서 암시되듯 브라우닝 역시 시인으로서 문학 작품이 지니는 힘, 즉 낯선 것, 새로운 것을 익숙하게 만들고 반대로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여 독자로 하여금 ‘실재’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문학적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프로이트의 개념 “언캐니”와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낯설게하기,” 토도로프의 “판타스틱” 등을 연상시킨다. 궁극적으로 브라우닝의 서신은 과학과 문학이 공통적으로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을 ‘가깝고 익숙한’ 것으로 대중들에게 제시하는 힘을 가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과학자도 때때로 마술과 같이 믿기지 않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작가와 마찬가지로 언어와 숫자 등 상징체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포우가 작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19세기 전반에 동물 자력론은 대서양안에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동물 자력론은 문학계에서는 포우 뿐 아니라 나다니엘 호손, 마가렛 풀러, 허먼 멜빌, 윌트 휘트먼, 그리고 이후 헨리 제임스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이들의 작품 내에서도 중요한 사상적 배경으로 언급된다. 이에 도리스 포크는 멜빌의 『모비딕』에서 에이합 선장, 호손의 『블라이트데일 로맨스』의 웨스터벨트, 제임스의 『보스턴 사람들』의 버레나 태런트 등이 메스머리즘의 영향을 예시하는 인물들이라고 말한다(537). 동물 자력론을 빌려 작품의 주제를 표현함에 있어 포우와 나머지 작가들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포우에게 있어서 동물 자력은 본래적이고 과학적인 의미에서 “심신 안에서 의식과 신체를 이어주며 둘을 활성화시키는 무도덕적 힘”이라고 할 수 있다(an amoral force operating within the mind and body, linking consciousness and “physique,” animating both, Falk 537). 이에 반해 호손, 멜빌, 휘트먼, 제임스에게 동물 자력은 도덕적, 심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끌어당기는 힘이고 (‘자력의 체인’ 혹은 ‘점착력’ 같은) 매력으로 인간 사이의 상호 의존성 또는 잠재적 상호 파괴력이라는 도덕적 비유”를 담는다(Falk 537).⁵⁾ 포우의 작품에는 그러한 심리적, 도덕적 암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의사는 자신의 의지를 환자에게 투영하지 않으며 따라서 환자를 파멸시키거나 자신이 파멸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포우의 단편은 19세기 중반 유행했던 흡혈귀 모티브를 담은 작품들과 대비된다. 흡혈귀 소재의 소설들 중 일부는 전기장력 이론에 영감을 받아 양극으로 충전된 강한 의지의 소유자인 의사가 음극으로 충전된 허약한 환자의 “갈바니 세포”를 재충전하여 건강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를 하던 중 기력을 소진하고 파멸한다는 내용을

5) 포크의 인용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force of attraction between minds and wills, an important moral analogue to human interdependence (the ‘magnetic chain’ or ‘adhesiveness’), or to the potentially destructive influence of one personality upon another”(537).

담고 있다. 비록 포우의 단편 중 「리기아」(“Ligeia”) 「모렐라」(“Morella”), 「어셔가의 몰락」(“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이 양극으로 충전된 남성 주인공과 음극으로 충전된 여성 인물 간의 심리적 역학 관계를 그림으로써 상기한 흡혈 모티브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거기에 어떠한 도덕적 암시가 들어가 있지는 않다(Falk 540). 도덕적 교훈이나 심리적 역학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래기드 마운틴」과 「발드머」속 의사들은 의도적으로 환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파괴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래기드 마운틴」의 템플턴 박사와 「발드머」의 피이(P.)는 동물 자력론에 기대어 자신의 환자를 치료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 이 두 작품 속에 드러난 동물 자력론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포우의 문학관과 연결되는지 알아보자.

3. 「래기드 마운틴 이야기」와 「발드머 케이스에 관한 사실」에 나타난 동물 자력론

「래기드 마운틴」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오거스터스 베들로는 오랜 기간 신경통에 시달려 왔으며 주치의 템플턴 박사에게 동물 자력 치료를 받아왔다. 어느 날 그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통증 완화를 위해 모르핀을 맞고 래기드 마운틴 산책에 나선다. 모르핀의 영향 아래 산책하던 그는 비몽사몽 간 “동양적으로 보이는 도시”(an Eastern-looking city, 103)에서 영국 군인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바리케이드 안에서 적들과 대치하던 중 “뱀과 같이 꾸불거리는 단도”(the writhing creese, 106)를 닮은 독화살에 이마를 맞아 죽게 된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환각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한 베들로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템플턴에게 이야기한다. 베들로의 얘기를 들은 템플턴은 그제서 베들로가 그가 예전에 알던 지인, 1780년에 인도 베나레

스에서 사망한 영국 군인 올드텡과 기이하게도 닮아있음을 발견하고 경악한다. 베들로가 래기드 마운틴에서 환각 상태의 기이한 체험을 할 때 템플턴은 마침 올드텡에 관한 회고록을 집필하고 있었고 그가 기술한 내용은 베들로의 체험과 일치한다. 베들로는 며칠 후 치료를 받다가 뱀 모양의 독거머리에 이마를 물려 죽는다. 베들로의 기이한 체험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베들로가 시간 여행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전투를 체험했거나 또는 그가 올드텡의 환생으로서 과거의 기억을 재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고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물 자력론을 이용하여 설명하자면 올드텡과 베들로는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 템플턴은 전투에서 상처 입은 올드텡에게 동물 자력 치료를 시행했으며 이들 사이에는 의사와 환자 간 자력이 생겨 올드텡은 긴 세월동안 반생반사, 살아있는 시체의 상태로 존재한 것이다. 결국 올드텡/베들로가 래기드 마운틴에서 겪는 기이한 체험은 템플턴이 회고록에 기술하고 있던 1780년의 사건이며 환자는 최면 상태에서 같은 경험을 되풀이한다.

「래기드 마운틴」에 등장하는 의사 템플턴과 환자 베들로는 각각 전형적인 메스머리스트 의사와 환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서술자가 밝히듯이 템플턴은 과거 파리에서 체류하며 메스머 이론에 심취했었다(100). 여느 의사와 마찬가지로 메스머리즘을 의술에 접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템플턴과 환자 베들로 간에는 조금씩 매우 뚜렷하고 강력한 *관계* 말하자면 자력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between Doctor Templeton and Bedloe there had grown up, little by little, a very distinct and strongly marked *rapport*, or magnetic relation, 100). 또한 베들로의 외형은 전형적인 동물 자력 치료를 받은 환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서술자는 베들로의 동공이 전기 충격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고 고양이 눈과 같이 동공의 팽창과 수축을 거듭했다고 묘사한다(99). 예를 들면 오래 무덤에 안치된 시체의 눈에서나 볼 수 있는 혼탁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빛을 내뿜는 베들로의 안구도 그가 메스머리즘을 이용한 전기 치료를

오랜 기간 받았음을 드러낸다. 포크는 「래기드 마운틴」과 「발드머」등 포우 단편 소설에 그려진 동물 자력을 이용한 의술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전자력”을 띤 유동체 혹은 메스머적으로 유도된 전류는 환자의 의지나 의식을 통해 들어간다. [...] 최면 또는 “스운”이라고 불리는 중간 상태 또는 아편이나 해쉬쉬와 같은 자극제나 약물의 영향 하에서는 완전한 의식 상태 혹은 코마 때 보다 전류가 더 자유롭게 흐른다. 환자의 마음은 부분적으로 유동체를 향해 열리고, 그 현상은 꿈, 환영, 환각을 통해 잘 드러난다. [...] 메스머리스트들이나 포우가 명명했던 “슬립웨이킹” 혹은 깊은 최면의 상태에서 [...] 유동체는 신체와 정신을 아우르는 전 생체에 침투하여 그것과 하나가 되고 [...] 자력류는 [메스머리스트와 환자 둘 사이의] 의지가 연결됨으로써만 형성된다. (Falk 538)

The portal for the entrance of the “electromagnetic” fluid—the mesmerically induced “current”—is the will or consciousness [...] In the middle state, that of sleep, or the “swoon,” or under the influence of stimulants or drugs such as opium and hashishi, the current flows more freely than in the wholly conscious or comatose states; the mind is partly opened to the “fluid,” and its presence is manifested in dreams, visions, hallucinations [...] In deep hypnosis, however, in the state some mesmerists called, as Poe did, “sleep-waking,” [...] the fluid can pervade the entire living being, physical and mental, and become one with it; [...] and the [magnetic] circuit established only by the connection of two wills [of a mesmerist and a patient].

위에서 포크가 상술한 동물 자력을 이용한 치료 과정은 「래기드 마운틴」과 「발드머」속 환자가 겪는 경험과 신체의 변화를 통해 예시된다. 그렇다면 포우가 위에서 “슬립웨이킹”이라고 부른 의식의 열림 상태에서 환자가 겪는 외부 세계와의 소통 혹은 타인(의사)과의 합일을 통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래기드 마운틴」과 「발드머」 외에도 포우의 많은 작품들에서 화자들은 비정상적 의식 또는 최면 상태에서 서술을 진행한다. 이러한 최면 상태(trance) 속에서 화자는 종종 “질병, 고통, 배고픔, (특히 어둡고 암울한 환경)을 비롯한 감각의 상실, 약물, 혹은 메스머리즘” 등의 요인으로 지각 능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경험을 한다(Falk 544). 따라서 포우는 위에 열거한 신체의 고통이나 부분적 상실은 오히려 지각과 인지의 폭을 넓히고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는 보고 느끼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하는 수단이 된다고 암시한다. 그의 작품 속 인물과 시적 자아는 이러한 최면 상태에서 발화하는데 최면의 영향은 “분석 능력 강화”에서부터 “시적 영감 또 광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Falk 544). 이를 동물 자력론을 모티브로 한 「래기드 마운틴」에 적용하자면, 여기서 환자들이 겪는 질병과 메스머리즘을 통한 전기 치료 역시 이성과 무의식의 경계를 약화시켜 외부 세계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므로 의식이 가로 막고 있는 상상과 초현실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매개 수단이 된다.

더 나아가 포우는 동물 자력론에서 언급되는 자력 최면이나 “스운”을 시적 상상력과 연관시키고, 궁극적으로 문학 작품을 통해 저자와 독자의 상상력이 만나 합일하는 공간을 동물 자력론에서 전류(혹은 유동체)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합일하는 전자기장으로 비유한다. 「래기드 마운틴」에서 베들로는 모르핀의 효과 아래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과거 모습으로 돌아가 재차 죽음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가 오랜 기간 앓고 있던 신경통과 그에 따른 모르핀 등 약물 외에도 환각 혹은 최면 상태를 불러일으킨 한 가지 더 중요한 수단은 바로 주치의 템플턴이 집필하고 있던 올드템에 관한 회고록이다. 베들로의 질병과 약물 사용이 그를 자력 최면으로 이끌고 최면 중 강화된 지각 덕분에 그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을 수 있었다면, 템플턴의 글쓰기는 베들로의 최면 상태를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매개가 된다. 베들로가 겪은 최면 상태의 결과, 즉 과거로부터의 기억 소환

사실을 알았을 때 템플턴은 집필 중이었던 자신의 “원고”(manuscript)를 자력 최면의 매개체로 제시한다.

“여기 원고들을 보면(이에 그는 몇 장이 새로 쓰인 듯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당신이 산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환상 속에서 경험하는 동안 그 시각 나는 집에서 그것들에 대해 자세히 종이에 적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108)

“You will perceive by these manuscripts,” (here the speaker produced a note-book in which several pages appeared to have been freshly written) “that at the very period in which you fancied these things amid hills, I was engaged in detailing them upon paper here at home.”

템플턴의 회고록 중 “새로 쓰인 몇 장”은 베들로가 그 날 아침 래기드 마운틴을 산책하고 있을 때 쓰인 것이다. 템플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의사와 환자를 연결한 동물 자력을 통해 베들로의 최면 상태를 관찰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동물 자력은 다름 아닌 템플턴이 집필하고 있던 “원고” 즉 글쓰기를 매개로 형성된다. 따라서 환자는 의사가 글로 집필하고 있었던 것을 정확히 최면 상태에서 경험하고 들은 원고 속에 적힌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다(Lind 1082). 이에 관해 아담 프랭크 역시 이 부분이 “작가와 독자 간 메스머리즘적 관계에 관한 포우의 이론 혹은 환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한다(Frank 648). 포우는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 안에 하나가 되는 작가와 독자의 관계를 의사와 환자가 메스머리즘적 최면 상태에서 유동체의 흐름을 따라 연결되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의사와 작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템플턴이 그의 펜을 통해 자신의 자세한 인상을 전달하고” 환자이자 독자를 대표하는 “베들로는 자신의 관자놀이로부터 바로 그것을 전달받는 것이다”(Frank 648).

텔레파시 혹은 전자기적으로 연결된 의사-환자, 작가-독자 관계는 베들로가 “동양적으로 보이는 도시”(103)에서 과거 죽은 자신과 대면하기 전

에 어떻게 래기드 마운틴으로 들어가게 되었나를 묘사하는 데서 더욱 자세히 드러난다.

“나는 즉시 산 속으로 걸음을 옮겼고 약 10시 경 완전히 처음 보는 협곡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불거리는 이 길을 흥미롭게 따라 갔지요. [...] 그 고독은 완전히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푸른 풀밭과 회색 바위들이 그 어떤 사람의 발길에 의해서도 한번도 닿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1)

“I bent my steps immediately to the mountains, and, about ten, entered a gorge which was entirely new to me. I followed the windings of this pass with much interest. [...] The solitude seemed absolutely virgin. I could not help believing that the green sods and the gray rocks upon which I trod, had been trodden never before by the foot of a human being.”

위에서 베들로가 언급하는 아무도 밟지 않는 처녀지는 곧 템플턴의 원고지에 비유될 수 있다. 그가 “구불거리는 길”을 따라 감춰진 처녀지로 발을 디디는 행위는 템플턴의 글쓰기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물 자력으로 템플턴과 연결되어 있는(en rapport) 베들로는 의사의 회고록 집필 내용을 최면 상태에서 그대로 경험한다.⁶⁾ 템플턴과 베들로, 둘이면서 자력류로 연결되어 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두 인물은 템플턴의 회고록 속 과거가 투영된 래기드 마운틴을 함께 탐색한다. 더욱이 이 둘은 의사와 환자 간 자력 뿐 아니라 감수성에 있어 닮아 있으며 시적 상상력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래기드 마운틴」에서 베들로의 “성정”(temperament)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감성적이고 쉽사리 흥분하였고, 열정적이었으며”(sensitive, excitable, enthusiastic), “그의 상상력은 독보적으로 왕성하며 창의적이었고”(His

6) 프랭크는 무의식 속 기억 탐구와 글쓰기 간 유사성을 지적한 자크 데리다를 인용하여 자력류로 연결된 베들로와 템플턴이 어떻게 동시에 산중을 탐험하고 무의식 속을 탐색했는가를 상세히 분석한다(648-49).

imagination was singularly vigorous and creative), 모르핀 사용은 상상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묘사된다(101). 템플턴 역시 동물 자력으로 인해 그의 상상력이 충전되었을 뿐 아니라 그 힘으로 회고록을 집필하는 작가이다. 동물 자력론에 의하면 의사와 환자 간 합일 관계는 베들레와 템플턴의 관계에서 보듯 둘 사이에 도덕적, 감성적, 신체적 동정심이 존재할 때만 가능한데, 이는 곧 포우의 문학 이론과 직결된다. 즉 작가와 독자 사이에 둘을 묶는 감성의 동질성과 상상력의 고리가 존재할 때만 문학 작품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포우에게 있어 동물 자력이란 “시에 있어 ‘상상력’에 비견되는 통합하고 밝히는 힘”(a unifying and illuminating force, comparable to “imagination” within a poem, Falk 537)이고, 때문에 자력으로 연결된 의사와 환자처럼 작가와 독자는 상상력으로 연결된다. 궁극적으로 동물 자력론이 예시하는 의사-환자 간 합일 상태는 포우가 이상적으로 간주한 작가와 독자 사이의 유대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비유이다.

동물 자력론을 다룬 또 다른 단편 소설 「발드머」에서도 「래기드 마운틴」과 마찬가지로 동물 자력으로 연결된 의사와 환자 관계는 상상력으로 충전된 작가와 독자의 관계로 나타난다. 하지만 전작과 달리 「발드머」에서는 의사와 환자는 동물 자력을 통해 완전히 합일하지 못하고 표류하며 따라서 치료는 실패로 돌아가는데 이는 작가와 독자 관계에 대한 포우의 불안감을 반영한다. 「발드머」에서 의사이자 작중 화자인 피어는⁷⁾ 동물 자력을 사용하여 불치병 말기 환자인 발드머를 치료하게 된다. 발드머는 7개월 동안 최면의 상태로 지내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데, 사망하기 직전 그는 “저 멀리 혹은 땅 속 깊은 동굴에서 들려오는 듯한 [...] 목소리”(the voice [...] from a vast distance, or from some deep cavern within the

7) 「발드머」에서 환자인 발드머를 제외한 모든 인물들의 이름은 약자로 처리된다. 특히 그를 치료하는 의사는 피어(P.)로 명명되는데 이는 포우의 약자와도 일치하기에 작가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arth, 200)를 통해 의사의 지시에 응답한다. 결국 화자는 발드머를 완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자신과 발드머를 연결하고 있던 자력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환자를 최면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발드머의 몸은 그 즉시 “거의 액체로 변한 끔찍하고 혐오스런 부패물 덩어리”로 변한다(203). 「래기드 마운틴」이 낭만주의적 여행기라면 「발드머」는 의사의 동물 자력 시술에 관한 수기로 마치 의료 진료기를 읽는 것과 같은 사실감을 준다. 특히 과학적 글쓰기를 연상시키는 포우의 기술적 서술은 대체적으로 비유적 언어를 자제하고 대신 “정확한 시간 측정과 의학적 용어를 사용한 사실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Frank 651). 이러한 서술 방법은 실제 메스머리즘 사례를 다룬 타운센드나 저스티너스 커너의 저서에서 발견되기도 하는데 당대 동물 자력론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대중에게 전파하고자 한 출판물의 스타일을 반영한다. 「래기드 마운틴」과 마찬가지로 「발드머」에서도 동물 자력은 작가와 저자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모티브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전자가 동물 자력으로 비유되는 상상력을 통해 완전 합일을 이룬 작가와 독자의 관계를 나타낸다면 후자는 이러한 관계가 불완전할 때 생기는 작가의 의구심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글쓰기 형식에서도 나타난다.

「래기드 마운틴」의 베들로와 템플턴은 의사와 환자, 작가와 독자로서 동물 자력과 상상력으로 한 몸이 된다. 따라서 의사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글을 쓰고 동시에 환자는 그 기술 내용을 최면 상태에서 산중을 산책하며 직접 체험하게 된다. 「래기드 마운틴」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이어주는 동물 자력과 같이 포우의 서술이 작가와 독자를 연결하는 “하나로 통합된 조절 능력”을 보여주는데 비해(Frank 650), 「발드머」에서는 화자인 피이(또는 포우)의 서술이 이야기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의사와 환자, 피이와 발드머로 이원화되어 있다. 피이와 발드머 사이 최면 관계는 불완전하여 발드머가 최면 상태에 있을 때 피이는 환자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 그들 간 대화는 자주 끊기는데 피이의 이야기

서술 방식도 그러하다. 이들의 불완전한 관계는 이미 작품 서두에서 암시된다. 「래기드 마운틴」에서 드러나는 의사와 환자 간 동질성과 동정심에 기인한 완벽한 최면 관계에 비해, 피이와 발드머는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발드머는 처음부터 피이의 최면 요법에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피이가 하는 일에 어떠한 동정심도 표한 일이 없었고”(he had never before given me any tokens of sympathy with what I did, 195), 피이도 발드머를 자신의 환자로서 동정하기보다는 단순한 의학 실험의 대상으로 생각할 뿐이다. 「래기드 마운틴」의 의사이자 회고록 집필가인 템플턴에 비해 피이는 동정심과 상상력이 부족하여 메스머 요법을 시행하기에 부적격한 인물이고 이야기의 서술자로서도 부족함이 드러난다. 그는 사실에 입각한 실증적 과학을 추구하는 의사답게 발드머 케이스에 관한 한 사실만을 얘기하겠다고 다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얘기가 “왜곡되고 과장된 얘기”(a garbled or exaggerated account, 194)이거나 “불쾌한 잘못된 재현이나 [...] 커다란 불신의 근원 이”(the source of many unpleasant misrepresentations [...] of a great deal of disbelief, 194) 될까봐 두려워한다. 포우 작품에서 동물 자력과 최면술이 작가와 독자 간 관계를 암시한다면, 피이의 방법에 동정심을 표하지 않는 발드머는 작가의 사상에 의구심을 가진 독자로 비유될 수 있다. 또 자기 확신이 부족한 메스머리스트 의사 피이는 작가 자신을 대변하고 “왜곡되고 과장된 얘기”는 「발드머」소설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발드머」는 독자에게 감명을 주는데 실패한 문학 작품에 대한 비인기 작가로서 포우가 느꼈을 불안과 초조함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피이보다 발드머, 더 정확히 말하면 발드머의 “혀”가 작품 속 서술을 지배하는 구조를 띠게 된다는 점이다. 발드머의 신체가 점점 쇠퇴하여 죽음에 다가갈 때 의사와 환자 간 동물 자력적 연결은 발드머의 목소리와 “혀가 진동하는 움직임”을 통해

서만 시현된다(201). 작품의 서두에서 나오듯 발드머 역시 작가로서 “저명한 ‘비블리오테카 포렌시카’를 엮은 이”이며 『발렌슈타인』과 『가르강튀아』의 폴란드어 번역자이다(194). 그 자신 문학가인 발드머는 피이의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 얘기하며 피이의 일관된 서술을 방해하고, 그의 신체는 결국 글자 그대로 종지와 펜으로 변화한다. 오히려 의사이며 화자인 피이의 서술을 글쓰기(writing)로 체화된 환자 발드머가 넘겨받으며 작품을 지배하는 것이다. 발드머와 피이는 동물 자력으로 연결된 최면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발드머씨, 아직 자고 있습니까?” [...]

“그렇소 아직 잠들어 있소. 죽어가고 있는 중이요.” [...]

내가 말을 하는 사이, 슬립웨이크의 얼굴에 뚜렷한 변화가 왔다. 두 눈은 서서히 열렸으며, 동공은 위쪽으로 사라졌다. 피부는 시체 색깔 같았고, 양피지보다 흰 종이에 가까웠다. 이제까지 양쪽 뺨 중간에 보였던 원형의 불그레한 부분은 갑자기 사라졌다. [...] 아래쪽 턱이 소리와 툭 소리를 내며 떨어져서 입을 벌어지게 했고, 그 사이로 부풀어 오른 검은 혀가 완전히 보였다. (199-200)

“M. Valdemar, do you still sleep?” [...]

“Yes; still asleep—dying.” [...]

While I spoke, there came a marked change over the countenance of the sleep-waker. The eyes rolled themselves slowly open, and the pupils disappearing upwardly; the skin generally assumed a cadaverous hue, resembling not so much parchment as white paper; and the circular hectic spots which, hitherto, had been strongly defined in the centre of each cheek, went out at once [...]; while the lower jaw fell with an audible jerk, leaving the mouth widely extended, and disclosing in full view the swollen and blackened tongue.

다니엘 헬러-로즌이 분석하듯 이 장면에서 발드머의 종이 색깔과 같은 피부와 까맣게 변한 혀는 그의 신체가 실제 종지와 펜으로 변화되었음을

상징하고 사람의 생명이 글쓰기로 형상화하는 것을 암시한다(45). 발드머의 목소리는 마치 무덤 속으로부터 들려오는 죽은 작가의 언어와 같아서 독자들 귀에 “저 멀리 혹은 땅 속 깊은 동굴에서”(200)부터 전해진다. 발드머의 마지막 발화 “나는 죽었소”(“I am dead,” 201) 역시 문학 작품을 통해 독자가 접하는 죽은 저자의 목소리이다. 작가의 목소리는 상상력과 동정심을 품은 독자가 글을 읽을 때 마다 다시 시체에 전류가 흘러 되살아나듯 살아나서 독자와 죽은 저자를 매개한다. 의사와 환자를 이어주는 동물 자력이 존재하는 한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고(en rapport) 치료가 이루어지듯, 작가와 독자 사이의 동질적 상상력이 존재하는 한 독자는 문학 작품을 통해 감명을 받고 마치 환자가 최면에 빠지듯 언어적 최면을 통해 문학을 실제처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피이의 동물 자력을 이용한 치료가 실패로 돌아간 뒤 환자 발드머가 갑작스럽게 끔찍한 액체 덩어리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의 결말 역시 의미심장하다. 피이의 치료가 실패하고 발드머가 사망하는 결말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내가 재빨리 메스머적인 최면을 거는 사이 “죽었소, 죽었소!” 하는 외침이 환자의 입술이 아닌 그의 혀로부터 완전히 터져 나오는 와중에, 그의 전신은 일 분도 채 안 되는 사이 일순간 쪼그라들고 허물어져 내 손 아래 완전히 *썩어* 없어졌다. 침대 위에는 모든 이가 보는 앞에 거의 액체로 변한 끔찍하고 혐오스런 부패물 덩어리가 놓여있었다. (203)

As I rapidly made the mesmeric passes, amid ejaculations of "dead! dead!" absolutely bursting from the tongue and not from the lips of the sufferer, his whole frame at once—within the space of a single minute, or even less, shrunk—crumbled—absolutely *rotted* away beneath my hands. Upon the bed, before that whole company, there lay a nearly liquid mass of loathsome—of detestable putridity.

이 장면에서 피이는 발드머에게 다시 최면을 걸어 그를 슬립웨이킹의 상태에서 깨워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그의 시도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발드머의 의지는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결국 환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거의 액체로 변한 끔찍하고 혐오스런 부패물 덩어리”로 변한 발드머의 몸은 작가의 언어적 최면이 통하지 않는 동정심이 결여된 독자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독자에게 외면당하고 쓸모없어진 작품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동물 자력론에서 의사와 환자를 잇는 자기장적 유동체와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에서 작가와 독자를 잇는 상상력인 “자기류”가 꺼지면 작품 자체는 아무 쓸모없는 “끔찍하고 혐오스런 부패물 덩어리”로 환원된다(203).

이런 의미에서 발드머의 혀와 부패한 그의 몸은 작가와 독자 관계에 대한 포우의 환상 혹은 불안감을 반영하는 자전적 요소의 상징이다. 포우 작품에 나타난 동물 자력에 관해 언급하며 브루스 밀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메스머리스트와 환자 사이에 존재하는 의지, 집중력, 동정심의 상호 강화는 작가에게, 특히 예술이 인간 내향적 영향력 혹은 포우가 얘기했듯 ‘영혼의 고양’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풍부한 가능성을 제공한다”(the mutually reinforcing acts of will, concentration, and sympathy between the mesmerist and the mesmerized provides rich possibilities to writers, especially those conceiving of their art as tied to inducing inward effects, or, as Poe puts it, an ‘exaltation of the soul,’ Mills 329). 포우가 생각한 동물 자력론에 있어 흥미로운 점은 그가 펜에 의해 생성되는 언어를 최면 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이는 메스머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자석을 이용하고 뿔세구르가 비언어적 방법으로 최면 상태를 이끌어 내려 한 것과 대조적이다. 제인 길레스피가 포우의 다른 작품 「메스머적 시현」을 통해 예시하듯, 1인칭 화자 시점에서 서술되는 포우의 단편 소설에서 독자는 작가의 서술에 이끌려 주인공과 함께 최면 상태에 빠지고 작가의 언어는 독자의

최면을 이끌어내는 매개가 된다(238). 동물 자력이 효과를 발휘하는 전자 기장에서 의사와 환자가 교류하듯, 언어라는 매개로 형성된 문학 작품 안에서 작가와 독자 사이에 존재하는 동질적 감수성과 통합적 상상력은 둘을 합일케 한다.

4. 결론

포우는 문학 작품 집필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담은 「작문의 철학」에서 문학, 특히 시가 추구해야 할 영역은 진리가 아닌 “미”라고 주장했다. 작가는 시적 상상력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독자는 이러한 미를 통해 “강렬하고 순수한 영혼의 고양”(intense and pure elevation of soul)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727). 또한 그는 “어떠한 종류의 미도 가장 우울한 지경에 이르면 반드시 감성적인 영혼을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므로 우울함이 시적인 톤에 가장 적합하다고” 역설한다(Beauty of whatever kind, in its supreme development, invariably excites the sensitive soul to tears. Melancholy is thus the most legitimate of all the poetical tones, 727). 포우에 따르면 죽음이 가장 우울한 소재이며 여기에서 그의 유명한 미인의 죽음이 가장 시적인 소재라는 명제가 탄생한다. 이에 비해 동물 자력론이 모티브로 등장하는 「래기드 마운틴」과

「발드머」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의 죽음 대신 중년 남성 환자가 등장하고 그들의 병으로 고통 받는 육체는 시적인 소재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포우의 시 세계가 그의 단편 소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같은 동물 자력론을 다룬 「리기아」나 「모렐라」에서 아름다운 여성의 죽음이 모티브가 되었던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포우가 「갈까마귀」(“The Raven”)의 예를 들면서 설명했던 독자의 영혼을 끌어올리는 시적 상상력은 「래기드 마운틴」과 「발드머」에서

동물 자력이라는 과학 이론을 빌려서 다시 표현되고 있다. 작가의 시적 상상력은 마치 자력과도 같이 독자의 영혼을 끌어들이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는 고양된 영혼을 통해 작가와 순간적 합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절대자 혹은 우주적 질서와 소통하는 무아의 경지를 경험하게 된다. 동물 자력론에서 의사가 환자의 정신과 육체를 통합하는 자력의 힘으로 환자를 치료하듯, 작가는 시적 상상력이 지배하는 문학 작품이라는 공간 안에서 독자의 영혼을 아름다움으로 고양시키고 치유한다. 유사과학에서 빌려온 개념을 통해 문학의 힘을 설명하려 했던 포우는 궁극적으로 과학과 예술은 모두 진리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브라우닝이 포우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포우 역시 과학과 문학은 공통적으로 상상력을 바탕으로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을 ‘가깝고 익숙한’ 것으로 대중에게 제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역설한다. 시적 상상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인지와 지각의 경계를 넘어선 불가사의한 진리와 미의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Works Cited

- Beaver, Harold, ed. *The Science Fiction of Edgar Allan Poe*. New York: Penguin, 1976.
- Chu, Seo-Young Jennie. "Hypnotic Ratiocination." *The Edgar Allan Poe Review* 6.1 (2005): 5-19.
- Clower, William T. "The Transition from Animal Spirits to Animal Electricity: A Neuroscience Paradigm Shift."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Neurosciences* 7.3 (1998): 201-18.
- Faivre, Antoine. "Borrowings and Misreading: Edgar Allan Poe's 'Mesmeric' Tales and the Strange Case of Their Reception." *Aries* 7 (2007): 21-62.
- Falk, Doris. "Poe and the Power of Animal Magnetism." *PMLA* 84.3 (1969): 536-46.
- Frank, Adam. "Valdemar's Tongue, Poe's Telegraphy." *ELH* 72.3 (2005): 635-62.
- Gillespie, Zane. "'Mesmeric Revelation': Art as Hypnosis." *Humanities* 4 (2015): 236-49.
- Glynn, Ian. "Two Millennia of Animal Spirits." *Nature* 402 (1999): 353.
- Heller-Roazen, Daniel. "Aglossostomography." *Parallax* 10.1 (2004): 40-48.
- Lind, Sydney. "Poe and Mesmerism." *PMLA* 62.4 (1947): 1077-94.
- Mills, Bruce. *Poe, Fuller and the Mesmeric Arts: Transition States in the American Renaissance*. Columbia: U of Missouri P, 2006.
- Ochs, Sidney. *History of Nerve Functions from Animal Spirits to Molecular Mechanisms*. Cambridge: Cambridge UP, 2004.
- Poe, Edgar Allan. "A Tale of the Ragged Mountains." Beaver 99-109.
- _____. "The Facts in the Case of M. Valdemar." Beaver 194-203.
- _____. "The Philosophy of Composition." *The Norton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 Shorter 7th Edition*. Ed. Nina Baym. New York: Norton, 2008. 724-32.
- Taylor, Matthew. "Edgar Allan Poe's (Meta)physics: A Pre-History of the Post-Human." *Nineteenth-Century Literature* 62.2 (2007): 193-221.

- 논문 투고일자: 2016. 11. 15
- 심사 완료일자: 2016. 12. 16
- 게재 확정일자: 2016. 12. 23

Abstract

Animal Magnetism in Poe's Short Stories

Hyewon Shin

(Korea University)

The idea of animal magnetism was invented by Franz Anton Mesmer, whose mesmerism was closely associated with animal spirits and galvanic electricity in the mind of nineteenth-century Americans. Connecting consciousness and the material body, the magnetic fluid in animal magnetism was known as the “unifying force” between the mind and the body. This essay examines “A Tale of the Ragged Mountains” (1850) and “The Facts in the Case of M. Valdemar” (1845) with regard to Poe’s interest in animal magnetism, seen in the context of the scientific paradigm shift between animal spirits and animal electricity. Animal magnetism for Poe is another name for poetic imagination exalting the human soul. He envisions literature as a space comparable to the electromagnetic field, where any distinctions between doctor and patient, writer and reader, manipulator and manipulated are blurred, and the two sympathetic parties are connected by the universal fluid, that is, poetic imagination.

Key Words

에드가 앨런 포우(Edgar Allan Poe),
「래기드 마운틴 이야기」(“A Tale of the Ragged Mountains”),
「발드머 케이스에 관한 사실」(“The Facts in the Case of M. Valdemar”),
동물 자력론(animal magnetism), 동물 정신(animal spirits), 상상력(imagination)